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11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Ⅰ.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Ⅱ.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5,619	24.1	53,837	37.7	1,782
일본 부분	2,601	35.2	4,694	17.6	-2,093
일본 비중	4.7		8.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

	2020년 10월	2021년 10월	증감률
수출(백만¥, %)	6,564,757	7,183,959	9.4
수입(백만¥, %)	5,723,962	7,252,464	26.7
수지(백만¥, %)	840,795	-68,505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1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7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9,244	-1,273	19,253	3,614	7,946	6,338
한국 부분(억¥)	74	30	25	95	-8	117
한국 비중(%)	0.4	-	0.1	2.6	-	1.8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9월 8일, 10월 8일, 11월 9일)에 근거하여 작성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0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0월	2021년10월	증감률		2020년10월	2021년10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1,585	92,416	50.1	전체	27,386	22,100	-19.3
방한 일본인	927	1,237	33.4	방일 한국인	2,021	1,900	-6.0
일본인 비중	1.51	1.34		한국인 비중	7.38	8.6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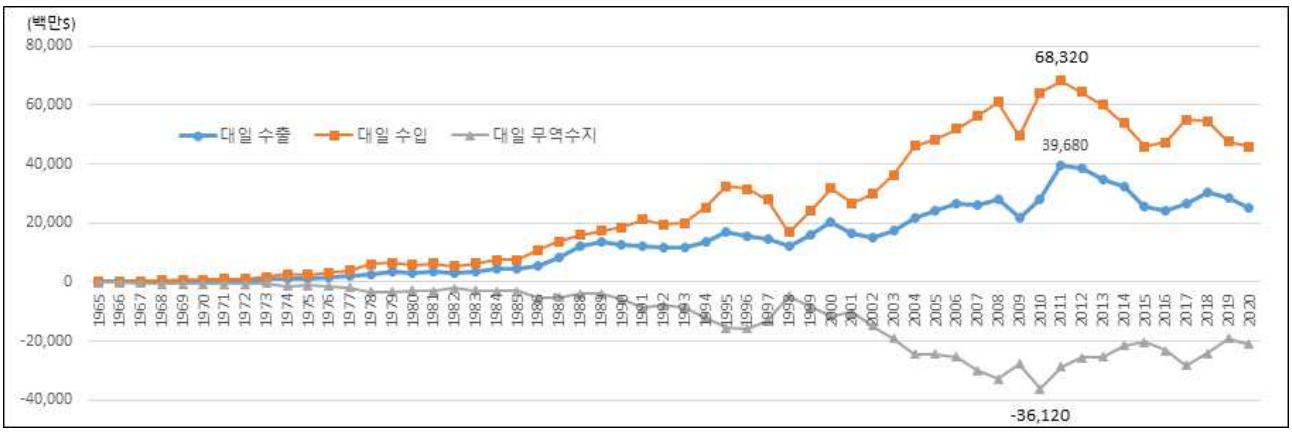
Ⅰ.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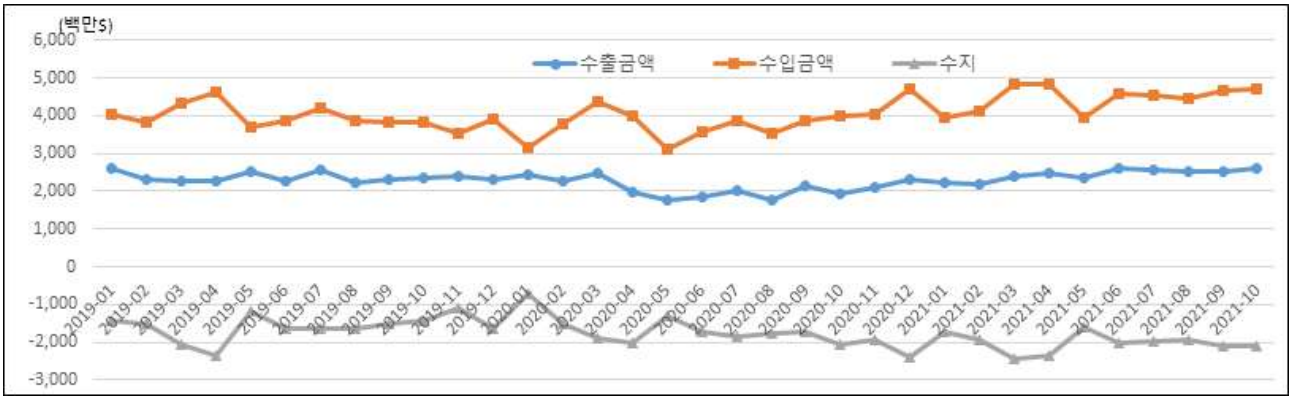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10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0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0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0월에는 전월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5.2%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7.6%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5,619	24.1	53,837	37.7	1,782
일본 부분	2,601	35.2	4,694	17.6	-2,093
일본 비중	4.7		8.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10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4.1% 증가하여 556.2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35.2% 증가하여 26.0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10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7.7% 증가하여 538.4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17.6% 증가하여 46.9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10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17.8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0.9억 달러 적자였음
- 2021년 10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7%였고, 수입 경우는 8.7%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10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10개 품목 모두가, 수입 경우는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1년 10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0월(백만$, %)			2021년 10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1,924	-18.9	-2,069	2,601	35.2	-2,093
1	광물성연료	147	-56.3	104	407	177.3	344
2	철강제품	272	-22.1	-86	374	37.4	-374
3	정밀화학제품	167	6.2	-204	231	38.5	-164
4	전자부품	126	-11.6	-559	192	51.9	-598
5	금속광물	107	43.9	16	156	45.9	100
6	석유화학제품	84	-26.1	-167	155	84.5	-149
7	산업용전자제품	118	-7.8	-105	130	10.0	-67
8	농산물	95	-11.7	77	100	5.8	80
9	수송기계	75	-30.1	-176	83	10.9	-106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66	-36.2	-40	78	18.1	-48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1년 10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0월(백만$, %)			2021년 10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993	4.6	-2,069	4,694	17.6	-2,093
1	전자부품	685	16.0	-559	790	15.3	-598
2	철강제품	357	-33.0	-86	748	109.3	-374
3	정밀기계	366	51.2	-322	456	24.8	-408
4	정밀화학제품	370	-1.1	-204	395	6.7	-164
5	석유화학제품	251	6.3	-167	304	21.3	-149
6	기초산업기계	191	7.9	-133	223	17.0	-155
7	플라스틱제품	229	26.4	-168	214	-6.6	-152
8	산업용전자제품	222	-7.9	-105	197	-11.3	-67
9	수송기계	250	40.7	-176	189	-24.4	-106
10	비철금속제품	120	15.9	-75	146	21.4	-84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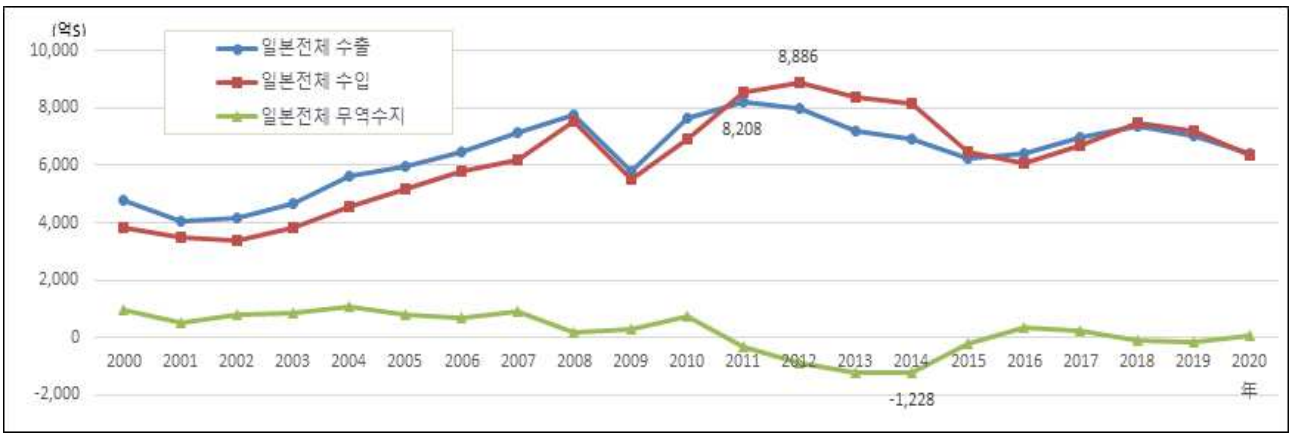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광물성연료(177.3%), 석유화학제품(84.5%), 전자부품(51.9%) 등 10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수송기계(-24.4%) 등 3개 품목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철강제품(109.3%) 등 나머지 7개 품목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경우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당월 적자로 전환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상황

	2020년 10월	2021년 10월	증감률
수출(백만¥, %)	6,564,757	7,183,959	9.4
수입(백만¥, %)	5,723,962	7,252,464	26.7
수지(백만¥, %)	840,795	-68,505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1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반도체등제조장치, 광물성연료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등이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하여 7조 1,840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6.7% 증가하여 7조 2,525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8,408억 엔 흑자에서 당월 685억 엔 적자로 전환됨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9.1%, 수입의 47.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7,767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2%, 수입의 23.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181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7%,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280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3%, 수입의 4.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913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1%, 수입의 4.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089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1%, 수입의 9.9%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5,856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3.0%, 수입의 2.7%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5%, 수입의 0.9%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7,183,959**	**100.0**	**9.4**	**7,252,464**	**100.0**	**26.7**	**-68,505**	**-**
아시아	**4,245,341**	**59.1**	**15.0**	**3,468,684**	**47.8**	**14.7**	**776,657**	**16.5**
중국	1,597,189	22.2	9.6	1,715,252	23.7	11.4	-118,063	44.6
홍콩	338,169	4.7	11.3	10,153	0.1	63.6	328,016	10.2
대만	524,185	7.3	24.0	332,869	4.6	32.2	191,316	11.9
대한민국	506,887	7.1	21.8	297,952	4.1	35.5	208,935	6.5
싱가포르	195,026	2.7	8.7	88,067	1.2	10.3	106,959	7.5
태국	319,525	4.4	11.2	241,211	3.3	2.7	78,314	49.1
말레이시아	143,405	2.0	15.8	179,060	2.5	25.5	-35,655	88.6
인도네시아	134,267	1.9	73.5	202,363	2.8	53.8	-68,096	25.7
필리핀	110,861	1.5	21.7	98,884	1.4	1.3	11,977	-
베트남	177,693	2.5	-3.2	174,899	2.4	-18.1	2,794	-
인도	122,420	1.7	24.1	62,434	0.9	35.6	59,986	13.9
대양주	**168,293**	**2.3**	**-10.4**	**616,664**	**8.5**	**85.3**	**-448,371**	**209.5**
호주	117,469	1.6	-18.4	564,511	7.8	90.5	-447,042	193.5
뉴질랜드	34,724	0.5	59.3	23,039	0.3	18.7	11,685	387.2
북미	**1,364,845**	**19.0**	**-0.7**	**864,507**	**11.9**	**24.4**	**500,338**	**-26.4**
미국	1,302,955	18.1	0.3	717,326	9.9	18.5	585,629	-15.5
캐나다	61,889	0.9	-18.7	146,439	2.0	64.5	-84,550	555.2
중남미	**232,225**	**3.2**	**4.8**	**350,700**	**4.8**	**32.7**	**-118,475**	**177.4**
서유럽	**772,497**	**10.8**	**9.5**	**873,559**	**12.0**	**15.4**	**-101,062**	**94.2**
독일	213,380	3.0	15.0	194,994	2.7	2.9	18,386	-
영국	105,957	1.5	7.4	66,538	0.9	23.0	39,419	-11.7
프랑스	60,355	0.8	12.2	145,565	2.0	68.3	-85,210	160.8
네덜란드	116,390	1.6	6.5	26,897	0.4	-22.9	89,493	20.3
이탈리아	49,442	0.7	44.3	88,645	1.2	5.4	-39,203	-21.4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58,193**	**2.2**	**6.6**	**207,495**	**2.9**	**41.9**	**-49,302**	**-**
중동	**137,910**	**1.9**	**-12.9**	**748,658**	**10.3**	**78.9**	**-610,748**	**134.8**
아프리카	**104,655**	**1.5**	**35.8**	**122,196**	**1.7**	**43.7**	**-17,541**	**121.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1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수송용기기(-28.7%) 1개 품목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지만, 광물성연료(210.0%), 원료별제품(37.2%) 등 나머지 8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6.8%)가 크게 감소하였고, 증가는 일반기계(4.2%), 원료별제품(3.8%), 기타(2.4%), 화학제품(2.2%), 전기기기(2.0%)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89.6%), 원료품(54.7%), 원료별제품(31.8%)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2.3%), 원료품(3.9%), 화학제품(3.0%), 원료별제품(3.0%)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0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183,959	100.0	9.4	9.4	7,252,464	100.0	26.7	26.7
1 식료품	91,657	1.3	17.2	0.2	613,955	8.5	10.9	1.1
2 원료품	118,407	1.6	18.5	0.3	636,921	8.8	54.7	3.9
3 광물성연료	111,000	1.5	210.0	1.1	1,484,724	20.5	89.6	12.3
4 화학제품	945,351	13.2	18.0	2.2	815,892	11.2	26.2	3.0
5 원료별제품	916,953	12.8	37.2	3.8	710,840	9.8	31.8	3.0
6 일반기계	1,467,955	20.4	22.9	4.2	595,752	8.2	0.6	0.1
7 전기기기	1,390,219	19.4	10.5	2.0	1,180,241	16.3	11.0	2.0
8 수송용기기	1,102,201	15.3	-28.7	-6.8	279,693	3.9	31.5	1.2
9 기타	1,040,215	14.5	17.8	2.4	934,444	12.9	1.4	0.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1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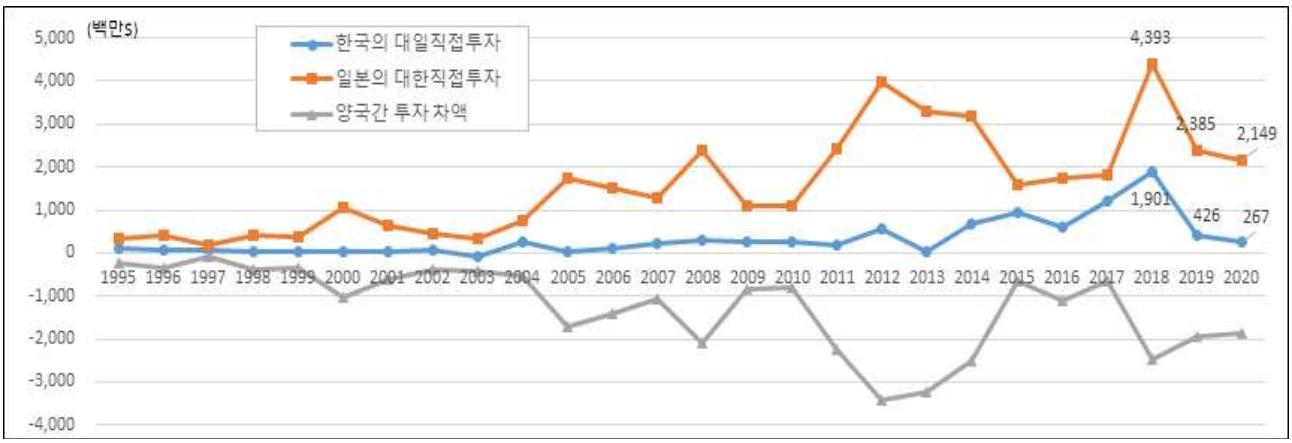
Ⅱ.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7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9,244	-1,273	19,253	3,614	7,946	6,338
한국 부분(억¥)	74	30	25	95	-8	117
한국 비중(%)	0.4	-	0.1	2.6	-	1.8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9월 8일, 10월 8일, 11월 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8월 19,253억 엔에서 9월 7,946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8월 25억 엔이었으나, 9월에는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8억 엔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8월 3,614억 엔에서 9월 6,338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8월 95억 엔에서 9월 117억 엔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2.6%에서 1.8%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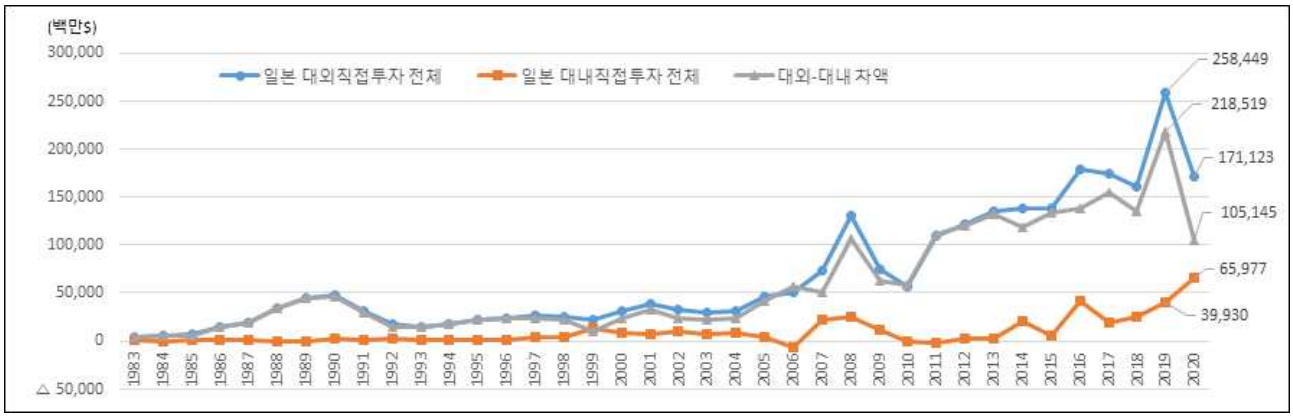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9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7,946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6,338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7,946억 엔(실행 40,220; 회수 32,273)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61.6%), 아시아(15.3%), 유럽(14.4%), 중남미(9.8%), 대양주(0.5%)순으로 이루어졌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4,741억 엔), 룩셈부르크(1,013억 엔), 영국(973억 엔), 중국(539억 엔) 등에 대한 순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6,338억 엔(실행 36,677; 회수 30,339)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40.6%), 아시아(21.1%), 대양주(14.7%), 중남미(12.8%), 유럽(8.4%)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가 큰 곳은 미국(2,548억 엔), 호주(950억 엔), 케이만제도(778억 엔), 홍콩(530억 엔), 영국(462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9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40,220**	**32,273**	**7,946**	**100.0**	**36,677**	**30,339**	**6,338**	**100.0**
아시아	**8,315**	**7,104**	**1,212**	**15.3**	**7,812**	**6,476**	**1,336**	**21.1**
중국	1,505	966	539	6.8	1,313	1,247	66	1.0
홍콩	606	225	381	4.8	1,450	921	530	8.4
대만	129	143	-14	-0.2	43	42	1	0.0
한국	81	88	-8	-0.1	177	60	117	1.8
싱가포르	4,277	4,879	-602	-7.6	4,034	3,646	389	6.1
태국	398	180	218	2.7	728	542	186	2.9
인도네시아	355	396	-41	-0.5	22	—	22	0.3
말레시아	213	77	136	1.7	25	18	8	0.1
필리핀	106	66	40	0.5	17	1	17	0.3
베트남	368	39	329	4.1	1	—	1	0.0
인도	159	12	147	1.8	0	—	0	0.0
북미	**18,550**	**13,654**	**4,896**	**61.6**	**11,205**	**8,630**	**2,575**	**40.6**
미국	17,569	12,828	4,741	59.7	11,177	8,630	2,548	40.2
캐나다	981	826	155	2.0	27	—	27	0.4
중남미	**1,536**	**755**	**781**	**9.8**	**948**	**139**	**809**	**12.8**
멕시코	223	172	50	0.6	—	—	—	—
브라질	113	11	102	1.3	—	—	—	—
케이만제도	314	51	263	3.3	873	96	778	12.3
대양주	**229**	**190**	**38**	**0.5**	**1,292**	**362**	**930**	**14.7**
호주	76	133	-57	-0.7	1313	362	950	15.0
뉴질랜드	116	40	76	1.0	1	—	1	0.0
유럽	**11,191**	**10,046**	**1,145**	**14.4**	**15,261**	**14,730**	**531**	**8.4**
독일	2,109	1,775	335	4.2	1,719	1,628	91	1.4
영국	2,821	1,848	973	12.2	5,737	5,275	462	7.3
프랑스	730	414	316	4.0	302	359	-56	-0.9
네덜란드	774	337	437	5.5	4,461	4,395	66	1.0
이탈리아	54	53	2	0.0	35	124	-90	-1.4
벨기에	1,115	1,784	-669	-8.4	1,254	1,112	142	2.2
룩셈부르크	1,467	454	1,013	12.7	19	14	5	0.1
스위스	65	46	19	0.2	1,303	1,036	267	4.2
스웨덴	98	75	24	0.3	18	32	-14	-0.2
스페인	17	1	17	0.2	142	141	1	0.0
러시아	52	5	47	0.6	—	—	—	—
중동	**62**	**138**	**-77**	**-1.0**	**10**	**2**	**8**	**0.1**
아프리카	**336**	**386**	**-49**	**-0.6**	**150**	**—**	**150**	**2.4**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1월 9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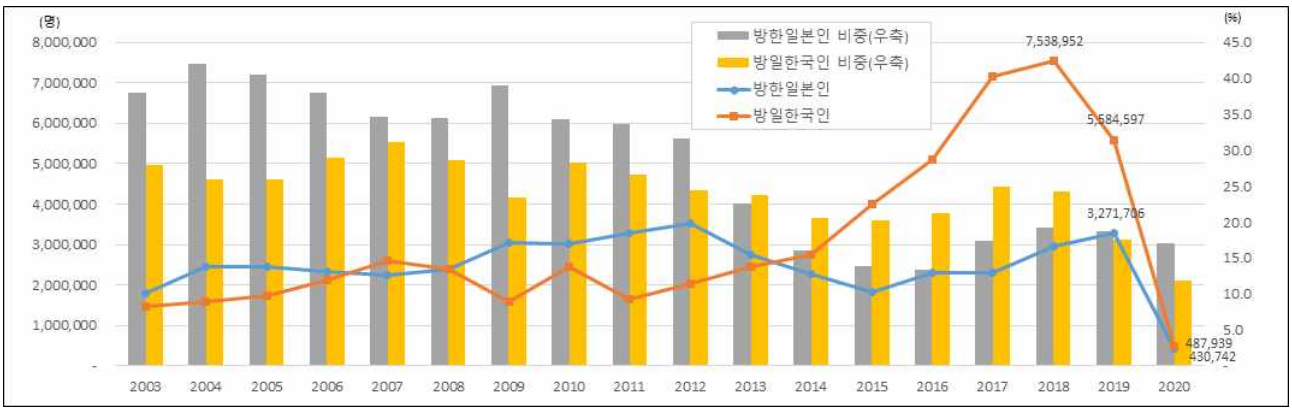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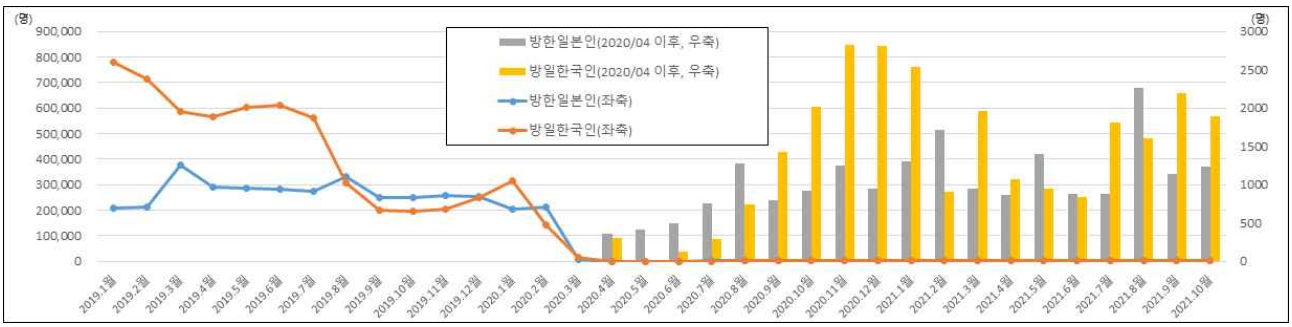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5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00명, 10월 1,9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0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0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 일본인은 증가한 반면, 방일 한국인은 감소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0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0월	2021년10월	증감률		2020년10월	2021년10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1,585	92,416	50.1	전체	27,386	22,100	-19.3
방한 일본인	927	1,237	33.4	방일 한국인	2,021	1,900	-6.0
일본인 비중	1.51	1.34		한국인 비중	7.38	8.60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10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92,41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1%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23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4%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10월 1.51%에서 2021년 10월 1.34%로 감소하였음
- 2021년 10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22,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3%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10월 7.38%에서 2021년 10월 8.60%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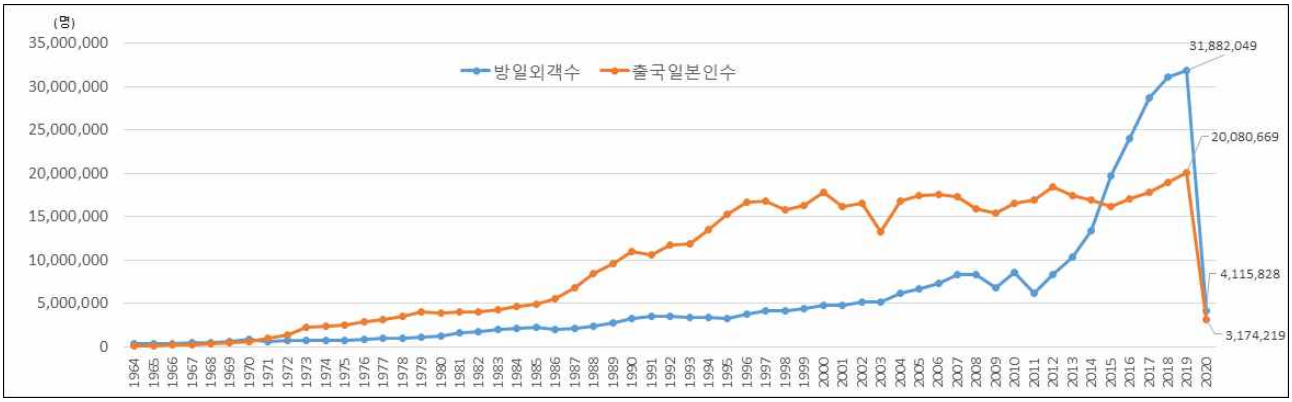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10월 상황

○ <표10>은 2021년 10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감소하였음

- 2021년 10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22,100명으로 전전년동월(2,496,568명)대비 99.1% 감소하였고, 전년동월(27,386명)대비 19.3%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1,900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4,00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68.2%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100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54.8%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인 수는 900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12.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1,00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83.8%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1,500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10.1%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2,000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14.6%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10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10월		2020년 10월		2021년 10월		전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496,568	100.0	27,386	100.0	22,100	100.0	-99.1	-19.3
한국	197,281	7.9	2,021	7.4	1,900	8.6	-99.0	-6.0
중국	730,631	29.3	4,502	16.4	4,000	18.1	-99.5	-11.2
대만	413,701	16.6	1,258	4.6	400	1.8	-99.9	-68.2
홍콩	180,562	7.2	221	0.8	100	0.5	-99.9	-54.8
태국	145,333	5.8	1,365	5.0	200	0.9	-99.9	-85.3
싱가포르	41,937	1.7	140	0.5	70	0.3	-99.8	-50.0
말레이시아	48,864	2.0	630	2.3	200	0.9	-99.6	-68.3
인도네시아	34,094	1.4	675	2.5	500	2.3	-98.5	-25.9
필리핀	64,690	2.6	423	1.5	900	4.1	-98.6	112.8
베트남	46,510	1.9	6,162	22.5	1,000	4.5	-97.8	-83.8
인도	13,929	0.6	714	2.6	1,500	6.8	-89.2	110.1
호주	51,563	2.1	200	0.7	300	1.4	-99.4	50.0
미국	153,363	6.1	932	3.4	2,000	9.0	-98.7	114.6
캐나다	37,667	1.5	118	0.4	300	1.4	-99.2	154.2
멕시코	7,385	0.3	34	0.1	50	0.2	-99.3	47.1
영국	68,401	2.7	253	0.9	400	1.8	-99.4	58.1
프랑스	39,457	1.6	449	1.6	400	1.8	-99.0	-10.9
독일	26,276	1.1	269	1.0	400	1.8	-98.5	48.7
이탈리아	14,731	0.6	133	0.5	200	0.9	-98.6	50.4
러시아	14,348	0.6	304	1.1	300	1.4	-97.9	-1.3
스페인	13,739	0.6	100	0.4	100	0.5	-99.3	0.0
중동지역	11,955	0.5	194	0.7	200	0.9	-98.3	3.1
기타	140,151	5.6	6,289	23.0	6,680	30.2	-95.2	6.2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11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1월 25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1-3월	2021년 4-6월	2021년 7-9월	2021년 7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0	-4.6	-1.3	7.6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5	-1.8	-0.4	2.9	1.6	2.1	1.9	0.7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5.2	22.7	21.1	21.2	27.4	16.5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3.0 -1.6	87.5 8.1	87.6 7.2	92.6 9.9	85.5 7.5	84.5 4.3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9.1	11.6	-9.3	-12.6	1.2	-13.3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7 -6.4	4.6 6.0	34.4 5.1	13.6 P 7.9	25.2 2.1	13.7 14.5	3.2 P 7.5	P -2.6 P -3.0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1.0	19.9	5.8	11.6	P 9.3	-2.3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26.0	93.9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8,383 1.7	7,773 -7.2	1,554 -28.1	1,490 -18.8	1,447 -28.4	476 -39.6	466 -30.1	505 -10.6	525 -15.8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3	2.8	2.8	2.9	2.8	2.8	2.8	2.8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0.3 -0.5	4.6 -0.8	6.0 - 0.2	5.8 -0.3	5.9 -0.4	6.4 0.2	P 8.0 0.1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9,001 106.09	28,983 109.50	28,553 110.09	28,118 110.29	27,692 109.84	29,893 110.17	28,586 113.10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9월, 10월, 11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일부 약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9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5.0%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9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2.8%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공급 측면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가전판매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에서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외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일부 약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경제사회 활동이 정상화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회복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4-6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4-6월기에 전기대비 3.2%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 증가, 비제조업이 2.8%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9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회복되고 있음
- 임대 및 분양주택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총 호수는 9월에 전월대비 1.2% 감소하여 연율 84.5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계약률이 70% 전후로 움직이고 있지만 약해지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음
- 9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2.6% 감소, 10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5.2% 감소, 9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6.0%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고,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최근 약세, 아메리카 및 EU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기타 지역 쪽 수출은 약세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10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9.1%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약세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약세,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 EU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9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감소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9월에 전월대비 5.4%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9월에 전월대비 3.4%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0월은 전월대비 6.4% 증가, 11월은 전월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감소하고 있고, 생산용 기계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쪽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급 측면의 제약 및 해외경제 동향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개인 대상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상장기업의 2021년 7-9월기 결산에 따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 대비 이익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9월 505건 이후 10월 525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약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인 등의 움직임에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9월에 전월과 같은 수준인 2.8%로 나타남
- 노동력 인구,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구인 수는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유효구인배율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9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10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1.2% 상승이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10월에는 전월대비 3.4% 포인트 상승하여 85.9%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고 후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고 있음
- 주가는 29,000엔 대에서 28,600엔 대로 하락하였다가 29,700엔 대까지 상승함

- 엔/달러 환율은 114엔 대에서 112엔 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이후에 114엔 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5% 대에서 -0.02%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8%(10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9.9%(10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4.2%(10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11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1월 25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다음 감염확대에 대한 안심확보를 위한 조치의 전체 모습'(11월 12일 COVID-19감염증대책본부가 결정)에 근거하여 백신접종, 검사, 치료약 등의 보급에 의한 예방, 발견부터 조기치료까지의 흐름을 다시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최악 사태를 상정한 대응을 실행함
- 백신・검사팩키지 등을 활용하고 감염확대를 방지하면서 일상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감

○ 또한 경기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당장의 경제가 지탱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감염이 재확대될 경우에도 국민의 생활과 고용 및 사업을 지켜내고 경제의 바닥 갈라짐을 방지함
- 또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시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여 경제를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음
-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및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11월 19일 각의 결정)을 원활하고 착실하게 수행함
- 2021년도 보정예산을 시급히 국회에 제출하여 조기 성립을 위해 노력함
- 그 사이에도 COVID-19 감염 상황과 기업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충분히 눈여겨보고 필요한 대책은 예비비 등도 활용해 유연하게 실행함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자금 조달 지원에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금융시장

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경제안전보장정책 및 3분기 실질GDP연율

ㅇ 경제안전보장정책 추진과 강화 방안
-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공급망 강화, 연구기관에서의 정보유출 방지 등 부처 간 횡단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관계각료회의를 신설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
- 경제안보추진법 제정을 위해 내각관방에 각 부처 직원 약 30명으로 구성된 준비실을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국의 경제부서와 연계하여 실무 검토를 하기로 했음
-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가칭)은 공급망의 강인화, 기간 인프라의 기능 유지, 특허의 비공개화, 기술 기반의 확보를 중점으로 함
- 공급망의 강인화 측면에서 반도체 등 일본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제도가 명기될 전망임
- 기간 인프라 기능 유지 측면에서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핵심 설비를 도입 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담을 방침임
- 특허 비공개화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검토함
- 기술 기반 확보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연구 개발에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함
-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양자암호통신의 연구 개발을 가속함

  ※ 양자암호통신(Quantum Cryptography Communication)은 빛 알갱이를 이용하여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양자(퀀텀)'을 생성해 송신자와 수신자 간 해독이 가능한 암호키를 만들어 해킹을 막는 기술임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1878&cid=59277&categ oryId=67996)
- 총무성이 보정 예산안에서 경제안보에 약 250억 엔을 계상했고, 이 중 약 145억 엔을 양자 암호 통신 연구 개발 추진에 충당함

○ 3분기 실질 GDP연율 마이너스 및 젊은 세대의 에너지 절약 주택 취득 시 보조금

- 내각부가 발표한 2021년 7~9월 GDP 속보치는 실질 성장률이 지난 분기와 비교하여 0.8%로, 1년간 계속되었을 경우인 연율로 환산하면 -3.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비상사태선언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소비 침체가 주요인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여 -1.1%였고, 수출의 경우 반도체 부족 문제와 동남아에서의 부품 조달 정체 등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 감산으로 -2.1%로 나타남
- 국토교통성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와 부부 중 하나가 39세 이하인 가구가 에너지 절약 주택 취득시 최대 100만 엔을 보조할 방침을 굳혔으며, 젊은 세대를 지원하면서 주택 분야의 탈탄소도 가속화할 생각임

○ 탈탄소화 일본정부 정책 및 산업계 대책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월 2일 UN기후변동조약 제26회 체결국 회의(COP26) 정상급 회담에서 아시아 등의 탈탄소화 지원에 공헌할 생각을 강조했으며, 2050년도 온실효과가스 국가별 절감 목표에 대해 2030년 대비 46% 감소를 내걸었음
- 기시다 총리는 COP26 정상급 회담에서 아시아 화력발전에 대해 석탄 연료로부터 수소 및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Zero Emission 화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Zero Emission(無排出시스템)은 산업활동에 있어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순환형 산업시스템으로 제로에미션이 실행되면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는 생산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됨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500&cid=40942 &categoryId=32415)
- 경단련은 11월 8일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하는 정부 목표 실현을 향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력 분야에서는 수소, 암모니아의 연료화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회수나 땅속으로의 저장 등을,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를 사용한 제철,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이 나열되었음
- 11월 14일 폐막한 COP26에 대해 마쓰노 관방장관은 석탄화력발전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면서 석탄화력의 발전비율을 가능한 한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일본정부・여당은 부담증가를 경계하는 산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2022년 세제 개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의 도입을 연기하는 방침을 정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1.11.02., 2021.11.10., 2021.11.13., 2021.11.22.; 요미우리신문, 2021.11.09., 2021.11.14.; NHK, 2021.11.15., 2021.11.22.)

□ 한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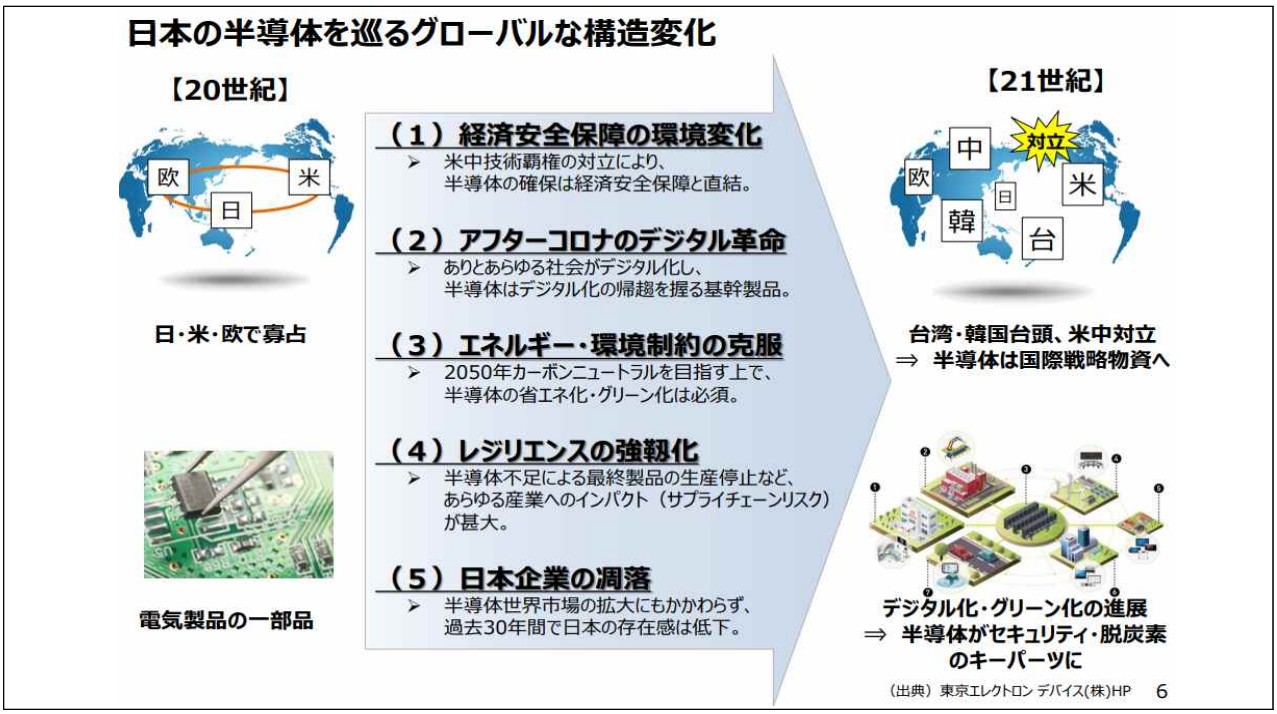
○ 한일경제인회의 온라인 개최
- 1969년부터 매년 한일 교대로 개최해 온 한일경제인회의가 11월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 한일경제인회의는 지구환경의 보전, 탈탄소화 같은 공통 과제에서 양국 경제인이 협력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음
-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은 11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나아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협의와 의사소통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1.11.02., 2021.11.11.; 요미우리신문, 2021.11.0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반도체산업 글로벌 구조변화 및 제조업의 리스크와 자동차산업 동향

○ 일본의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구조의 변화
- 반도체는 5G, 빅데이터, AI, IoT,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DX 등 디지털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전략기술임
- 20세기에는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반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음
- 21세기 들어 대만과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대두와 미중갈등 등의 상황에서 반도체는 국제전략물자로서 중요해졌고, 디지털화, 그린화의 진전으로 반도체는 보안과 탈탄소 분야에서 핵심부품이 됨
- 반도체의 확보는 경제안보와 직결되게 되었고, COVID-19로 사회가 디지털화되어 반도체는 디지털화의 귀추를 결정하는 기간 제품이 되었음
-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최종 제품의 생산 정지 등 반도체의 모든 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세계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서서히 그 지위가 저하되었음



출처: 経済産業省(2021.06.), 半導体戦略（概略）

ㅇ 일본 제조업의 리스크와 기업의 대처 방안

-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철이나 구리 등 부자재 가격 급등, COVID-19 감염 재확대에 따른 부품 공급 부족 등의 사업 리스크가 일본 제조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반도체 부족의 영향으로 히타치는 자동차 부품 자회사에서의 부품 공급과 자동차 회사로부터의 OEM 수주 감소에 의한 타격으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낮아짐
- 반도체 부족 문제와 공급망 단절 문제에 대한 단기조치로는 재고를 많이 확보하거나 가격이 저렴할 때 많이 사들이는 방안, 혹은 조달처의 다각화, 복수 부품이 사용 가능한 설계 변경 등의 대처도 진행되고 있음
- 후지쓰제너럴의 경우 해외 일부 시장에서 에어컨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등 가격 전가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음
- 소니의 경우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계획에 협력할 방침이며, JVC켄우드는 공급망 문제와 수익 기반 강화를 위해 생산 거점을 재편하는데, 국내용 카·내비게이션의 생산을 국내로 집약함

ㅇ 차세대 연료 활용을 위한 기업 제휴 및 미국 EV 판매지원책 영향

- 가와사키중공업과 야마하는 11월 13일 이륜차에 탑재하는 수소 엔진 개발 공동 연구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음
- 마쓰다, 토요타, 스바루는 바이오 관련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개발을 추진하는 계

획을 밝혔음
-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권의 대형 세출법안과 관련하여 미국 민주당이 EV 판매지원책으로 자국 우대안을 발표하였음
- EV 판매지원책의 내용은 세액 공제액 상한을 인상한다는 것인데,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된 경우 $4,500 공제액이 추가되고, 조립된 차량의 구성부품 50% 이상과 함께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인 경우 $500이 추가된다는 조건인데, 사실상 미국 빅3의 EV만 큰 지원을 받는 구조라고 함

(출처: 산케이신문, 2021.11.08., 2021.11.09., 2021.11.13.; 経済産業省, 2021.06.)

□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칙 정비 및 COVID-19 백신 개발

○ 이용자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칙 정비
- 총무성은 타겟팅 광고 등 이용자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칙 정비에 나서는데, 웹 열람 이력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을 이용자가 막는 구조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무화함
-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지침 등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12월부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는데, 광고, IT기업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보유한 사업자의 대부분이 새로운 규범의 대상이 되는데, 제3자에게 송신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 일본에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경우 데이터의 외부 제공을 이용자가 거부하기 쉬워져, 결과적으로는 자사 서비스에서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글이나 애플 등 IT 대기업의 우위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도 있음

○ 일본 제약 기업의 COVID-19 백신 개발 동향
-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한 가운데, 일본기업은 아직 백신 그 자체를 실용화할 수 없어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 백신 개발에 있어서 구미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으며 일본기업은 최종 단계 임상시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임
- 시오노기제약은 최근 최종 단계의 임상시험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 공급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M바이오로직과 다이이치산쿄는 2022년 3월까지 최종 임상시험을 할 계획이며, 앤제스와 VLP세라퓨틱스도 임상시험을 진행함
- 과제가 되는 것은 피험자의 확보라고 하는데 이는 접종이 진행되어 피험자를 모으기 어렵고, 먼저 실용화된 백신이 있는데 위약을 주사하고 비교하는 것에는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출처: 닛케이신문, 2021.11.30., 아사히신문, 2021.11.30.)